

한얼님은 우주정신



이 사람은 철이 나고서부터 인생을 두 개의 화두(話頭)로 살고있다. 두 화두는 ‘이 뵈고’와 ‘저 뵈고’이다. 스스로 내 몸을 가리키며 이 뵈고의 물음에는 ‘짐승’이 그 대답이고, 저 하늘을 가리키며 저 뵈고의 물음에는 ‘우주정신’이 그 대답이다. 이 두 화두를 때마다 잊지 않고 있다. 몸을 씻거나 체조를 하면서 이 뵈고의 화두를, 저녁 밤하늘을 우러르며 저 뵈고 화두를 자신에게 묻고 대답한다. 몸나는 얼마나 주인님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고, 맘나는 그 마부이다. 얼마나 저 뵈고인 우주정신(한얼님)이 보낸 한얼님의 아들인 참나이다. 저 원일(元一)의 우주정신은 아버지로 참나이다. 우주정신이 곧 진리정신이요, 영성의 정신이다.

이 뵈고에 대한 류영모의 대답이다.

“이 몸통이 제나는 거짓 생명이다. 우리는 참 생명인 얼마나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참나인 열생명을 깨닫는 것이다. 한얼나라에는 얼마나 들어간다. 거짓 생명인 몸나는 죽는다. 죽음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인 몸통이를 연명 시키려고만 궁리하고,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안된다.” (류영모 『다석어록』)

‘저 뵈고’에 대한 류영모의 대답이다.

“장엄(莊嚴)은 정말이지 저 무한 무극의 허공이 장엄하다. 허공의 얼굴인 공상(空相)이 장엄하다. 우주 만물은 허공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 만물이 모두 동원해서 우주 허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붓꽃 같은 몬(物)만 보고 우주 허공은 못본다. 제가 좀팽이 같은 것이어서 몬(物)밖에 못본다. 빔(허공) 열(성령)의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우리는 못본다. 아주 더 할 수 없이 온전하고 신령하여 큰 것은 없(無)이다.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 있(有)을 내고 거두는 없(無)을 믿는다. 없는 것을 모르니까 믿는다. 있는 것은 아니까 안믿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얼님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얼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들어가지면 들어가려 힘써야 한다. 갈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고 가야 한다. 영원히 갈 것은 오직 거룩하고 참된 생각 하나만이다. 영원 무한한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아는 것은 생각 때문이다. 이런 물질(몸) 말고 오직 생각뿐인데가 있을 것이라 해서 한얼님을 사모한다. 영원히 가는 것은 생각하는 열 그것뿐이다. 다르마(Dharma) 말씀(로고스)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사람이 이 뿔고 그리고 저 뿔고라고 하게 된 것은 2천 년 전에서 2천 5백년 전, 그 사이에 태어난 예수와 석가의 맘에 지혜의 생각이 열리고부터이다. 그 앞서는 2백 만년전부터 원숭이의 한 종인 유인원(類人猿)으로 살았다. 사람은 유인원 가운데도 침팬지와 DNA(유전인자)가 가장 가깝다. 99.4%가 같고 0.6%가 다를 뿐이다. 사람은 털이 적어지고 꼬리가 퇴화되어 없어졌다. 그러나 돌연변이로 드물게 털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꼬리 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런데 외모보다 짐승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짐승의 세 가지 특징이 먹는 것(feeding), 싸우는 것(fighting), 새끼 낳는 것(sex)이라고 한다. 사람은 이 세가지의 짐승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불교에는 세 가지를 모진 짐승 성질이라 하여 삼독(三毒)이라 한다. 삼독을 탐욕(貪慾), 진에(瞋恚), 치우(癡愚)라 이른다. 욕심을 내어 도둑질도 하게 되고, 성질을 내어 싸우고, 음심을 일으켜 음행을 저지른다. 짐승들은 탐진치의 수욕(受慾)을 본능적으로 절제하게 되어있어 지나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는 짐승들이 사람보다 덜 짐승적이라 짐승들에겐 소아강간이란 없다. 사람은 잘났다는 이르는 바 영웅호걸들이 삼독을 엄청나게 저질렀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 영웅이라는 자들이 권력이나 금력(金力)을 잡으면 고작 하는 일이 호의호식(好衣好食)하고 처첩(妻妾)을 많이 거느리는 것으로 인생이 다인 줄로 알았다. 과식(過食)하고 과색(過色)하는 악마의 나라를 세워놓고서 멸망해가는 것이었다. 삶의 핵심은 식색(食色)에 있다. 식과 색을 절제할 줄 모르면 용기도 지혜도 정의도 없는 지옥 세상이 된다.” (류영모 『다석어록』)

사람의 몸뚱이가 대단한 것인 줄 아는데 이 공간에 시간이라는 강물이 흐르는데 저절로 생겼다 꺼졌다 하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날마다 뉴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질병으로 사고로 재해로 난리로 죽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 물거품처럼 시시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인생들이 가엽고 어리석기 그지 없다. 산들 짐승 노릇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보람이 있겠는가. 무덤 속으 묻혀 있는 해골에게 물어보자. 인생살이가 어떠했던가?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노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2천년 전에 온 석가와 예수가 이 몸뚱이의 삶

에 대해 큰 의심을 품고 이 뿔고 하고서 생각하기에 들어갔다. 이를 구도수행(求道修行)이라 한다. ‘이 뿔고? 이견 아니다’ 이 우주의 임자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었다. 나의 생명은 비록 아버지가 낳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란 대행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궁극적인 임자는 이 우주의 임자인 것이다. 우주의 임자인 우주정신(한얼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였다. 레프 톨스토이는 생각되기를 어떤 짓국은 존재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해놓고 내가 고뇌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더는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하였다. (톨스토이 『참회록』)

예수와 석가의 결사적인 기도에 우주정신의 대답이 왔다. 땅의 아버지가 낳아 준 몸생명은 거짓생명이라 고난과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 거짓 생명인 몸나를 부정하고 우주정신인 얼을 참나로 받아들이면 우주정신(한얼님)과 하나 되어 한얼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예수와 석가는 아버지가 낳아준 제나(몸나)를 참나가 아니라 부정하고서 우주정신인 한얼님의 얼생명으로 솟나 한얼님 아버지(어머니)라 부르면서 기쁨으로 황홀하였다. 석가의 부다가야에서의 깨달음, 예수의 유흥의 광야에서의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예수와 석가가 땅에 있는 몸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예수는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고, 석가는 아버지에게 ‘나는 석가족이 아니다’ 고 말하였다. 우주정신인 얼나로는 몸의 어머니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얼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는 몸의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땅의 아버지애 불효하지는 것이 아니다. 낳고 기른 아버지의 사랑은 잊지 못한다. 그러나 땅의 아버지애 대한 효도보다는 한얼님에 대한 효도가 먼저이다.

류영모가 우주의 정신인 한얼님이 주시는 얼나가 참나임을 깨달은 뒤에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온 건 몸나(제나)로는 죽기 위해 난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죽기는 왜 죽어’ 하고 잡아매지만 그게 말이 되는가? 이 나(제나)란 신발과 같다. 이 제나란 신발을 일생 동안 신는다. 신이 낳아진다는 것은 자아발견(自我發見)이란 뜻인데 인생의 의미란 말이다.

인생의 뜻을 알았으면 아무 때 죽어도 좋다. 인생의 의미란 내가 한얼님이 주신 일어나는 한얼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일어나는 한얼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면 몸나는 아무 때 죽어도 좋다. 내 속에는 벌써 우주의 정신인 일어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얼님의 아들인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이므로 생사(生死)를 초월하여 죽지 않는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난 우주정신인 일어나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일어나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죽지 않는 생명인 일어나를 가졌기에 이 껍데기 몸은 언제나 어디서나 죽어도 좋은 것이다. 거짓 생명인 몸나(제나)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자는 것도 멸망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종족 보존만 해 온 멸망의 생명인 짐승시대에서 일어나의 진리 보존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영성 시대를 열은 석가에서 예수까지의 시대를 야스퍼스는 인류 문화의 기축시대(axial area)라 이름하였다. 그런데 영성 시대를 열은 한 사람인 장자(莊子)는 이미 도추(道樞)라는 말을 썼다. 기축이니 주축이니 하는 것보다는 도추 시대라 하는 것이 좋다. 도추 시대를 연 이의 대표도 석가, 예수, 장자, 노자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영성시대를 열은 인류의 스승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영성의 깊이에는 장자(莊子)와 노자(老子)가 좀 더 생각이 깊은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우주정신인 닐바나(Nirvana)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 주었으니 땅의 아버지에게서 얻은 제나(몸나)는 참나가 아님을 알아 생사(生死)의 뿌리를 이미 끊고 영원한 생명인 일어나(Dharma)를 깨달아 닐바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떠난 뒤에도 닐바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기 바란다.” (열반경, 박영호 의역)

“사람이 한얼님이 주시는 열 성령로 솟나지 아니하면 한얼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한얼님의 열로 난 것은 일어나(한얼님 아들)이라 한얼님께로 돌아가 경배한다.” (요한 3:5~8, 박영호 의역)

이상은 석가와 예수의 가르침과 장자와 노자도 석가와 예수에 못지 않은 도인(道人)들이었다. 장자의 소요(逍遙)편에 나오는 큰 새 대붕이 한얼님처럼 일생을 한결같이 천원정(天遠征)을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짐승의 의식을 버리고

우주 정신을 깨달아 우주정신인 원일(元一)의 근원인 한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장자가 말한 심재(心齋), 상아(喪我), 좌망(坐忘)은 짐승 성질의 제나(ego)를 죽여 일어나로 극기(克己) 초월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노자는 한얼님의 우주정신을 예수가 아버지라 비기듯 어머니로 비기었다. “우주정신은 영원하다. 이가 한얼 어머니이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노자』 6장) 노자는 우주의 임자인 우주정신인 한얼님은 무얼 의지함 없이 스스로 다 해결하므로 자연(自然)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Nature)이 아니다. “사람은 땅을 의지하고 땅은 자연을 의지하고 자연은 참을 의지하고 참(말씀)은 한얼님으로 말미암는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노자』 25장) 또 노자가 이르기를 “모든 물질(문)은 한창 때를 넘기면 낡아진다. 이는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열)이 아니면 빨리 그만두자(物壯則老 是謂不道 不道早已)” (『노자』 30장), “없이 온통인(허공) 한얼님께로 돌아가자(復歸於無極)” (『노자』 28장)

석가와 예수는 학교를 못 다녔고 스승도 없었다. 장자와 노자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2천년도 더 지난 오늘날의 우리가 읽고 생각하여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우주정신인 한얼님과 열로 교통하여 배워 깨달았던 것이다. 지식은 세상의 스승들에게 배울 수 있지만 일어나는 우주정신인 한얼님에게서 직접 배워야 한다. 예수 석가가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도 “땅에 있는 스승을 스승이라 말라, 한얼님이 참 스승님이다. 나는 스승이 아니라 너희의 친구이다.”라고 하였다. 예수가 자신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면, 이제는 보혜사(保惠師)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보혜사는 성령으로 일하신 한얼님이다. 석가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 스스로 일어나(다르마)에 배우라고 한 것도 우주정신에게 스스로 배우라는 유언의 가르침이었다. 이 나라의 교육이 인격수립(character building)에 실패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류영모는 일찍 이런 말을 하였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다. 사람이 일어나로 거듭나 한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류영모 『다석어록』)

우주정신을 참나로 깨달은 류영모가 우주정신을 찬양

한 말이다.

“인생은 한정된 이 땅 위에 삶의 참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없는 저 무한 우주에 삶의 뜻이 있다. 사람이 우주정신과, 우주신앙과, 우주철학을 가지고 다시 없는 인생을 참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우주 자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우주정신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저 우주 자연현상에서 우주정신의 영원한 생명의 울동을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다. 어머니 배속에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나온 몸나는 멸망의 생명으로 참나가 아니다. 우주정신인 진리의 열나가 참나이다. 일어나는 지강지대(至剛至大)하여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다. 우주정신인 열나가 참나인 것을 석가 예수가 일찍 깨달아 그 우주정신의 진실을 언행의 삶으로 실증하여 주었는데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모두가 제 욕심을 채우려 하니까 모르게 된다. 석가 예수를 바로 알려면 제 맘속에 가득 차 있는 삼독의 수욕(三毒)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제심(齊心)을 못하면 석가 예수는 이름뿐이다. 목사 스님 노릇도 일생 동안 하는 것이 벌린 짓이라 안하지는 못하고 하는 체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열의 노래는 못된다.” (류영모 「다석어록」)

일본의 후치무라 미사오(藤村 彌生)는 우주정신을 못 깨달아 비판하는 유서를 써놓고 폭포에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아득하여라. 아득하여라. 이 땅 위에서 저 하늘 끝까지. 멀고도 멀어라. 예서 옛날까지. 오직 작은 몸으로 두 한 우주를 헤아리자니 ‘우주의 진상(真相)은 알 수 없어라.(철학자 Fraser의 말) 나는 나를 안고 있는 우주를 알지 못함을 한탄하며 번뇌하다가 끝내 내 삶을 끊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니코(日光)에 있는 화엄 폭포 절벽에 오셨다. 지금 내 마음에 아무런 불안은 없다. 이제 알았다. 큰 비판은 큰 낙관과 통함을.” (후치무라 미사오, 「탄식의 머리위에서의 느낌」, 東京 제 1 교고 재학생)

많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주정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 같은 결심으로 수행을 하였다면 일본에 우주정신을 깨달은 붓다(佛)가

것에 대해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 같은 결심으로 수행을 하였다면 일본에 우주정신을 깨달은 붓다(佛)가 나왔을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그 생각, 그 나이가 아깝기 그지 없다.

미국의 데이빗 소로는 석가도 예수도 멀리한 채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나가고서 우주정신을 참나로 깨달았다. 소로는 분명 붓다(佛)를 이룬 이가 틀림 없는데 미국 사람도 외국인들도 몰라준다. 내가 분명 말하건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성불(成佛)하였다. 소로붓다이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붓다 소로를 몰라주며 인도의 석가 붓다를 바로 알아줄까 걱정이다.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돌아가 45년을 살았다. 한얼님을 창조주라 하는 등 미숙한 점도 보이지만 진리 되시는 우주정신을 온전히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소로 붓다라 부름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한얼님을 우주정신(The Spirit of Universe)이라 부른 것도 존경스럽다. 소로는 레프 톨스토이와 마하트마 간디로부터 경애함을 받고 영향을 미쳤다.

“내가 보잘 것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곤 한다. 생각해 보면 나는 무력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나저나 모두 어느 정도 타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정신(한얼님)은 대체로 나에게 친절하다. 그 까닭은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분에 넘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지식에 대한 욕망은 시들해질 때가 가끔 있다. 하지만 우주정신과 열로 교통하며 한얼나라의 신선한 열향기에 취하고 싶은 바램과 저 대기를 뚫고 솟아올라 저 높은 미지의 한얼나라에까지 바라보고 싶은 바램은 언제나 한결같이 끊어지는 일이 없다.

나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바로 우주정신인 한얼님의 최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으로 나를 구속할 수는 없다. 늘 한얼님을 우러르는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 속에 끝없이 넘치고 있다. 거룩한 기쁨으로 내 정신이 위로 오르고 넓어지는 느낌이 가득 찬다. 나의 제나(ego)는 아무 일도 않는다. 제나를 초월한 열나의 힘이 나를 이끈다. 나의 삶은 나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가 경험해 알지 못 한 것을 말할 뿐이다.”(헨리 데이빗 소로 『소로의 일기』)

소로는 석가와 예수를 존경하면서도 신화로 우상화 되고 기적으로 미신화 되어 있는 예수 석가를 멀리하여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주의 정신과 영교를 하였다. 그리하여 한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충성을 하게 되었다. 소로는 한얼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류달영은 소로와 같이 예수 석가가 우상화되고 미신화 된 것을 싫어하여 예수 석가를 젊어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교신 류영모의 영향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예지와 양지로 예수와 석가를 그들이 깨달은 일나는 하나로 보고 똑같이 인격을 경애하고 경전을 정독하였다. 류달영은 참이 자연(自然)을 법받는(道法自然) 한 마디가 좋아서 노자(老子)도 경애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란 어머니에게서 받은 몸으로는 짐승과 같은 것을 알게 되는게 신앙의 첫 단계이다. 내 자신이 한얼님에게서 받은 얼로는 한얼님과 하나인 것을 깨달으면 신앙이 성숙단계에 이른 것이다. 짐승인 제나(ego)에 비분해 발버둥치기도 하고 한얼님의 성령인 얼나를 참나로 깨닫고 기쁨으로 감격하기도 하였다. 내가 예수 석가를 똑같이 존경함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한얼님의 얼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류달영 『인생의 열쇠 꾸러미』)

류달영은 그의 시문(詩文)에 쓰기를 “마음을 높푸른 하늘처럼 거룩히 기르자. 마음을 넓은 바다처럼 넓게 기르자. 마음을 우뚝 솟은 뫼처럼 빼어나게 기르자.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한결같이 기르자. 마음을 싹 틔우는 흙처럼 부드러워 기르자. 마음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기르자. 마음을 강 속 깊이 보석처럼 값지게 기르자. 마음을 텅 빈 호공처럼 깨끗이 기르자”고 하였다. 마음은 쉽없이 기르어야 하는 두 번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우주는 알아도 우주정신이 있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땅은 알아도 땅정신속에 융합하고있는 것을 모르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거나 강속에 불덩어리 용암이 있는 것을 보지할 수 없게 된다. 우주에 우주정신이 있다. 우주정신인 얼로 교통을 하는 결사권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주정신이 있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인

류 가운데 석가 예수가 열사람의 대표이다. 그들의 정신을 통해 나온 말씀이 우주정신의 드러남이다. 가장 가까이 이 나라의 류영모를 통하여 우주정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정음(正音)을 들어본다. 류영모 자신도 우주정신(한얼님)의 말씀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우주정신의 성화로(聖火爐)에 열생명의 불을 태우느냐 못태우느냐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열생각을 불살라 우주정신을 밝게 빛내는 것이고 거룩하게 드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열매 맺혀 말이 터지게 된다. 내가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태우는 것을 사린다고 한다. 거룩한 생각의 불꽃을 태우는 것이 말씀 사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의 불꽃을 사르는 것이 있으니 우주의 정신이신 한얼님 당신에게 말씀을 사뢰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르는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얼의 불꽃이 있게 마련이다.

때로는 나도 홀로 기도하듯이 혼자 영원의 당신(한얼님)하고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가 우주인의 정신과 관념을 가진다면 주소 따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면 우주에 산다고 하면 그 뿐이다. 도대체 어디에 사느냐고 묻는 것이 우스운 것이다. 우주 공간에 태어난 것으로 알면 어디에서도 잘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적어도 태극(太極) 천하 그 어디에 갖다 놓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주의 정신으로 우주의 임자로 살아야 한다. 우주를 삼킬 듯이 돌아다녀야 집 없다 걱정, 병 난다 걱정, 자리 없다 걱정, 그저 걱정하다가 삶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우주 여행가가 되어 우주를 훨훨 돌아다닌다고 꼭 우주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우주정신인 생각의 불꽃이 문제이다. 어떤 철학자(칸트)는 일생 동안 고향에서 4십리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생각의 불꽃을 예수 석가처럼 우주정신으로 불태운다면 우주정신(얼나)으로 영생한다.”(류영모 『다석어록』)